

일반적 신뢰감, 내집단 · 외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규정 요인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비교

LIN PINGPING (고베대학)

1. 시작하며

사회에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화와 문화 융합이 진행되고, 다양성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생하는 다문화 속에서, 대인 관계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은 대인 상호 작용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뢰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된 후에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신뢰는 불특정 타자 일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일반적으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람과 어우릴 때는 가능한 한 조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와 특정 상대에 대한 ‘개별적 신뢰’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창되어 왔다. 신뢰는 특정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문맥 안에서 구축되고 유지되며, 신뢰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그 특정한 문화적 문맥을 떼어놓을 수 없다(Janus, 2009). 때문에 신뢰에서 문화의 역할을 해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실시된 다양한 국제 비교 조사(World Value Survey 등)에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대상으로, 국제 비교 · 시계열 비교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신뢰 관계의 현주소와 그 변화를 파악했다. 다음으로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리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개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East Asian Social Survey 2012(이하 EASS 2012)의 데이터를 활용해 일반적 신뢰감, 특수적 신뢰감(내집단에 대한 신뢰감, 외집단에 대한 신뢰감)에 착목해 각각의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에 관한 국제 비교를 행했다.

2. 신뢰감에 관한 선행 연구

2.1 일반적 신뢰감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지금까지의 신뢰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보다 구미권 국가가 일반적 신뢰감이 높다고 거듭 보고되었다.(Yamagishi, 1988; Yamagishi & Yamagishi, 1994). 한편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일반적 신뢰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12년에 한국 · 중국 · 일본 · 타이완 4개국 · 지역에서 실시된 EASS 2012에 따르면, 일반적 타자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중국이 80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뒤를 50퍼센트가 조금 넘는 일본이 뒤따랐으며 한국과 타이완은 40퍼센트에 그쳤다. 세계 가치관 조사¹(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2. 조심하는 편이 낫다’‘3. 모르겠다’로 3가지 선택지로 질문했을 때, 중국에서는 60퍼센트의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한국·일본·타이완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신뢰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화 비교 연구의 대부분은 문화 차이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고 있어, 신뢰의 성질, 문화 차이를 낳는 독자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상술한 대로 동아시아 사람들의 일반적 신뢰감은 구미인보다 낮는데, 이 차이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또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국, 일본, 타이완의 일반적 신뢰감이 중국보다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2.2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선행 연구를 개관해 보면,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주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3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 3가지 측면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를 리뷰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Furumo & Pearson, 2007; 与謝野·林, 2007), 연령(Ermisch et al., 2009), 소득 격차(Bjørnskov, 2008), 교육(Oreopoulos & Salvanes, 2011)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신뢰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요인이 일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사회 참가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뢰를 낳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Putnam, 1993). Delhey & Newton(2003)은 자주적인 조직(Voluntary organization), 사회적 네트워크, 커뮤니티(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역의 안전성),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사회적 갈등, 민주적 제도에 대한 만족도, 정치적 자유, 치안)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일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을 때, 공공의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은 시민이 일반적 신뢰가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소셜 캐피털의 하나인 이웃과의 교류와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일반 신뢰감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片岡, 2014).

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스널리티 척도를 사용해 신뢰감과 퍼스널리티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Freitag & Bauer, 2016).

기존의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적 신뢰감을 종속변수로 삼아, 이들 요인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일반적 신뢰감과 특수적 신뢰감(특정 상대에 대한 신뢰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내집단의 성원(가족, 친구, 동료 등)에 대한 신뢰감이나 외집단의 성원에 대한 불신감과 같은 특정 상대에 대한 신뢰감은 어떤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걸까. 일반적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 상대를 향한 신뢰감에도

¹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착목해 일반적 신뢰감,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 외집단에 대한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3. EASS 2012를 활용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비교

3.1 데이터

EASS 2012에서는 일반적 신뢰 설문에 더해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주민, 경찰관, 자위대 대원, 재판관, 국가공무원, 교원, 의사, 보도 관계자와 같은 15종류의 대상자에 대한 신뢰감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ASS 2012의 데이터(유효 응답 수: 일본은 2,335, 한국 1,396, 중국 5,819, 타이완 2,134)를 활용해 동아시아의 신뢰감을 비교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감의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감의 각 하위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한 후, 신뢰감의 각각의 측면에 착목해 신뢰감을 규정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또한 일반적 신뢰감, 내집단에 대한 신뢰, 외집단에 대한 신뢰에 착목해, 인구 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도시 규모, 학력 등), 사회적 요인(접촉하는 가족/가족 외의 사람의 인원 수, 외식 빈도, 액세스 가능한 직업 수, 소속 단체 수, 이웃 상황 등)의 2가지 측면이 각각의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을 비교하고, 신뢰감의 문화 차이를 낳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검토했다.

3.2 분석에 활용한 변수

먼저 종속변수의 조작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반적 신뢰감’에 대한 질문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를, ‘내집단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신뢰 항목으로는 ‘친척’‘친구’‘이웃 주민’‘동료’를, ‘외집단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신뢰 항목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설정했다. ‘일반적 신뢰’ 항목은 ‘1. 대부분의 경우 신뢰할 수 있다’‘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3. 대체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4. 대부분의 경우 조심하는 것이 좋다’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내집단에 대한 신뢰’와 ‘외집단에 대한 신뢰’에 관한 항목은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4점에서 1점까지 차등화해 점수를 구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조작에 대해 설명하겠다. 본 발표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도시 규모, 학력, 세대 수입 등을 사용했다. 또 계층 귀속 의식(10단계로 나뉘었을 때 자신이 속하는 위치)을 사용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1일 접촉하는 가족/가족 외의 인원 수’‘가족 외의 사람과 외식하는 빈도’‘액세스 가능한 직업’‘소속되어 있는 단체 수’‘부탁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항목과, ‘이웃 주민은 서로를 배려한다’와 ‘이웃 주민은 내가 곤란할 때 도와준다’ 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웃 상황’, 의견 교환 상대의 입장과 지위(높은 지위, 중간 지위, 낮은 지위) 등을 사용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행복감, 인생에 대한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에 관한 항목을 사용했다.

3.3 결과 · 고찰

분석 결과 다음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모든 문화에서 개별 상대에 대한 신뢰감으로는 ‘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비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 3가지 인자가 추출되었다. ‘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중국이 가장 높고, 중국>일본=한국>타이완 순이었다. ‘비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중국이 가장 높고, 중국>타이완>한국>일본 순,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중국이 가장 높고, 중국>한국>일본=타이완 순이었다.

2) 일반적 신뢰감은 특수 신뢰감의 3가지 인자와의 사이에서 약한 정(正)의 상관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 신뢰감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이 비교적 강하다. 반면 한국, 일본, 타이완에서는 일반적 신뢰감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이 비교적 강하다.

3) 일반적 신뢰감의 규정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실이 시사되었다. 모든 문화에서 ‘이웃과의 상부상조’는 일반적 신뢰감에 정(正)의 효과를 준다. 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이 도와준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 신뢰감이 높다. 또한 한국·일본·타이완은 교육 수준이 일반적 신뢰감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학력의 유의미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일본과 중국에서만 행복감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감이 높았다. 일본과 타이완에서만 인생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다.

4)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규정 요인은 모든 문화에서 ‘이웃을 서로 배려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이 도와준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 중국 사회에서만 새 지인이 생기는 빈도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5) 외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규정 요인은 모든 문화에서 ‘외국 시 새로운 지인이 생기는 빈도’가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다.

6) 일본과 중국으로 한정해 일반적 신뢰감과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일본과 중국의 문화 차이(중국은 1, 일본은 0)에서의 ‘이웃과의 상부상조’의 매개 효과를 검토했을 때, 일반적 신뢰감은 부분 매개 효과,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에서는 완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중일 문화 차이는, ‘이웃과의 상부상조’ 정도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이 시사됐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요인은 각각의 신뢰감에 다른 효과를 미친다는 점, 다른 문화에서 각각의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모든 문화에서 이웃과의 상부상조는 일반적 신뢰감과 내집단에 대한 신뢰감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타오카(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타자에 대한 신뢰는 실제로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의 사교를 통해 양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신뢰감의 규정 요인을 비교 검토한 후, 신뢰감의 문화 차이를 낳는 요인을 검토했다. 향후로는 본 연구의 성과를 발판 삼아,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한국과 일본 간, 일본과 타이완 간 등에서 볼 수 있는

문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 Bjørnskov, C. (2008) Social trust and fractionalization: A possible reinterpret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271-283.
- Ermisch, J., Gambetta, D., Laurie, H., Siedler, T., & Noah Uhrig, S. C. (2009) Measuring people's trust,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2(4):749-769.
- Freitag, M., & Bauer, P. C. (2016) Personality traits and the propensity to trust friends and stranger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4):467-476.
- Furumo, K., & Pearson, J. M. (2007) Gender-Based Communication Styles, Trust, and Satisfaction in Virtual Teams, *Journal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s*, 2(1):47-58.
- Janus, T. (2009) Trust and culture. *International Game Theory Review*, 11(02):199-206.
- 片岡えみ(2014) 「信頼感と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 寛容性」 『駒沢大学文学部研究紀要= Journal of the Faculty of Letters』 72: 137-158.
- Oreopoulos, P., & Salvanes, K. G. (2011) Priceless: The nonpecuniary benefits of school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1):159-18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与謝野有紀・林直保子(2007) 「Ⅳ 格差、信頼、および協力」 『研究双書 社会変動と関西活性化』 144: 89-112.
- Yamagishi, T. (1988)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3):265-271.
- Yamagishi, T., &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번역책임자:천감재)